

## 여성, 마법, 그리고 궁정: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

최 예 정

호서대학교

### I

녹색기사(Green Knight)란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아서왕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매일 새로운 놀라운 사건을 희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서왕과 그의 기사들에게조차도 녹색기사의 등장은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다. 중세의 문법으로는 마법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신비로운 존재와 그들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경이로운 사건, 마법의 침입으로 시작된 로맨스는 결국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고 마법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중세나 현대의 독자들 모두에게 상식이다. 결국 이 로맨스는 어떤 식으로 신비한 녹색기사의 비밀이 드러나고 마법이 풀릴 것인지를 기대하며 청중은 귀를 쫑긋하고 독자들은 책장을 넘기게 된다.

그런데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는 이러한 독자들의 기대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 같지 않다. 작품 말미에 가서 녹색기사/버티락(Bertilak)은 자신이 크리스마스 파티 무드에 젖어 있는 아서왕의 궁정에 들어가 목자르기 게임(beheading game)을 제안한 것은 모르간 르 페이(Morgan le Fay)가 계획한 것이었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너무 급작스럽고 충분한 배경설명도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귀네비어 왕비를 “대경실색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모르간의 동기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설득력을 잃는다. 독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아서왕 로맨스들의 인터텍스트를 곱씹으며 자기 나름대로 동기를 추론해 작품의 의미망 속에 편입시켜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비평가들도 적지 않다. 가령 프리드만(Friedman)은 “그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가 결말까지 견고하게 움직여가는 상황에서 “모르간을 전체 플롯을 움직이는 힘으로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274)고 말하면서 작품 안에서 모르간의 존재의 미미함을 지적한다. 사실 브루어(Brewer)가 지적하듯, “시와 행위의 십분의 구는” 작품의 명확한 동기라고 제시된 것과 “전적으로 무관하다”(Symbolic Stories 81). 또한 브루어는 또 다른 글에서는 이 작품은 “가웨인의 이야기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며 “모르간과 귀네비어가 가wein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건간에 그들은 주변적인 존재일 뿐”(“Interpretation” 570)이라고도 말한다. 대 마법사 멀린(Merlin)에게 마법을 익힌 모르간의 힘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그녀가 아서왕의 궁정에 타격을 주기 위해 녹색기사를 동원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작품 속에서 모르간, 혹은 마법에 대한 설명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녹색기사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작품 속에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가령 녹색기사가 모르간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녹색기사로 변한 것인지, 혹은 모르간은 전체 사건을 총지휘했을 뿐 버티락은 자기 의지대로 녹색기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로맨스에서 마법이 등장하면 그러한 변신의 비밀이 설명되거나 마녀의 저주가 풀리는 장면이 로맨스 결말부에 등장하여 마법의 존재가 충분히 탈신비화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녹색기사의 마법의 비밀, 그리고 녹색기사와 레이디(Lady)를 동원하는 모르간의 존재는 가웨인이 귀환한 아서왕의 궁정에서, 그리고 독자들 혹은 비평가들의 머리 속에서 불완전하게 설명된 채 잊혀진다. 그리고 기사로서의 가웨인의 성장 혹은 한계, 그리고 그를 맞이한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들의 기사도 정신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

가 마법의 세계, 초현실의 세계에서 등장한 녹색 기사로 시작했으면서도 작품의 말미에서는 녹색기사의 존재와 의미는 사라지고, 재해석된 녹색 띠(green girdle)를 통해 재단합하는 아서왕의 궁정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점이다. 결국 마법이 가져다준 경이는 사라지고 다시금 자신들에게 친밀한 기사도 이데올로기로 회귀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 때 마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법과 아서왕의 궁정을 이어주는 혹은 단절시키도록 작용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법이 아서왕의 궁정에 침탈할 수 있게 작동한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서왕의 궁정은 원탁의 기사들로 명성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왕국의 발생과 멸망에 귀네비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와 같이 아서 왕국 안에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자꾸만 지워지고 덮여지는 여성, 특히 작품의 플롯의 추동자라 할 수 있는 귀네비어 왕비와 모르간, 그리고 이 마법의 드라마를 궁정식 사랑의 드라마로 연기했던 레이디 이 세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여성의 힘과 마법의 힘이 중첩되는 지점을 적시하고, 그것이 아서왕의 궁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인의 동시대의 궁정에 투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흥겨운 분위기에 젖은 아서왕의 궁정을 묘사하는 화자의 시선은 궁정의 구석구석을 짚어가고 아름다운 귀네비어 왕비의 존재는 근심 걱정 없는 이 궁정의 즐거움의 화룡정점으로 제시된다.

귀네비어는 잘 장식된 테이블 중간에  
 우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앉아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훌륭한 휘장이 감싸고 있었고  
 캐노피는 가장 좋은 보석으로 꾸며지고 치장된,  
 툴루즈와 타르시아에서 가져온 고급스런 실크 태피스트리로 되어 있었다.  
 저것을 사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왕비는 회색 눈이 반짝이는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였다.  
 더 아름다운 여왕을 보았다고는



버틸락의 부인으로 끝까지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레이디는 이러한 점에서 귀네비어와 많이 닮았다.<sup>4</sup> 버틸락의 성에서 실 수 있도록 가웨인이 안내된 방에는 귀네비어의 좌석을 장식했던 것과 같은 툴루즈와 타르시안 산 실크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고(858행) 이 방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레이디는 귀네비어 왕비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945행). 작품 초두에 툴루즈와 타르시안 산 테피스트리가 아서왕의 궁정의 부귀를 대표하는 물품으로, 그리고 그 완결자로 귀네비어가 제시되던 것과 똑같은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 레이디가 존재한다는 것은 레이디 역시 남편 혹은 주군의 힘의 상징이며 주군의 영광을 완성시킬 소유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sup>5</sup>

그런데 귀네비어와 레이디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태블로(tableau)의 정적인 장면과 동영상의 차이와도 같이 목소리와 시선, 그리고 동작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레이디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식사를 잘 대접 받은 후 가웨인과 버틸락이 채플로 갔을 때 레이디도 들어와 따로 떨어진 좌석에 앉고 가웨인과 버틸락은 나란히 앉는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때 레이디는 기사가 보고 싶어  
 어여쁜 아가씨들과 함께 그녀의 좌석에서 일어나왔다.  
 고운 피부, 어여쁜 얼굴도  
 몸매도 빛깔도 기동도 제일 아름다웠다.  
 귀네비어 왕비보다 더 아름답다고 가웨인은 생각했다.  
 그 멋진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그녀는 성단을 통과해 나왔다.<sup>6</sup>

을 귀네비어에게 들켜서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130). 귀네비어와 모르간 사이에는 반목 혹은 경쟁관계의 전통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비평가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페이트(Paton)을 들 수 있다. 그는 중기 영어의 *Sir Launfal*과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의 *Lanval*에서 보이듯이 귀네비어와 요정 연인간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소재로 삼는 문학 전통이 있는데 모르간이 이러한 요정 연인의 대표라고 말한다(Heng 510에서 재인용).

<sup>4</sup> Heng(Heng)은 그녀는 제 2의 귀네비어라고까지 말한다(502).

<sup>5</sup> 피셔(Fisher)는 작품 속에서 가웨인의 말 그링고렛(Gringolet)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이름이 있는데 오직 그녀에게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버틸락은 그녀를 언급할 때 “나의 부인”(2359, 2361)이라고만 부를 뿐이어서 마치 자신의 소유권만 중요하며 그것만이 그녀에 대해 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시한다고 말한다(84).

<sup>6</sup> 마지막 구절을 보로프는 가웨인이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걸어 나오는 것으로 번역한다.

Penne lyst þe lady to loke on þe knyzt,  
 Penne com ho of hir closet with mony cler burdez.  
 Ho watz þe fayrest in felle, of flesche and of lyre,  
 And of compas and colour and costes, of alle oþer,  
 And wener þen Wenore, as þe wyȝe þoȝt.  
 Ho ches þurȝ þe chaunsel to cheryche þat hende. (941-46)

로맨스의 공식에 따르면 아름다운 부인이 등장할 때 관심을 갖고 그녀를 쳐다보며 관찰하는 것은 언제나 기사 몫이다. 여성은 시선의 대상이며 그녀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시선의 대상으로서 그녀의 아름다움의 다양한 면모를 감상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 그녀의 능동성의 신호로 해석되지 않는다.<sup>7</sup>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가웨인을 보고 싶어 하는 레이디의 욕망이 가웨인의 욕망보다 우선한다. 그녀는 가웨인을 보기 위해 일어나 걸어 나온다. 레이디의 외모에 대한 가웨인의 관찰, 그리고 그의 평가와 묘사가 뒤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레이디가 먼저 일어나 나온 후 뒤따라 온 후속동작일 뿐이다. 보려는 의지, 인사하려는 적극성, 걸어 나오는 동작 이 모든 것들이 레이디의 몫이다. 970행에 나타나는 가웨인과 레이디의 시선의 교차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When Gawayn glyȝt on þat gay, þat graciously loket). 귀네비어는 시선의 대상일 뿐 시선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레이디는 시선을 먼저 주거나 응시의 대상이 되었을 때 다시 응시의 주체가 되는 역동성을 지닌 존재로 제시된다.

이러한 그녀의 주체로서의 면모는 가웨인이 쉬는 방 안에 들어와 유혹하는

---

이것은 필사본의 *he*를 받아들인 번역일 것이다. 하지만 톨킨과 고든은 주석에서 946행이 필사본에서는 *he*로 써여 있지만 아마 이것은 *ho*(*she*)의 오키였으리라는 라잇(Wright)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며(102) *ho*로 표기한다. 필자 역시 톨킨과 고든의 주석에 따라 946행의 주어를 그녀로 해석한다.

<sup>7</sup> 이 장면과 가장 유사한 장면은 아마 14세기 후반의 로맨스 『투르 백작』(*Erle of Tolous*)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불리본(Beulybon)을 연모하는 투르 백작은 그녀를 한 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하고 그녀가 미사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는데 이때 불리본은 투르 백작이 자신을 충분히 보고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천천히 두 바퀴 돌고 그의 앞으로 다가간다(322-405). 이때 불리본은 표면적으로는 그 앞으로 다가오고 몸을 돌리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르 백작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전혀 제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투르 백작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제시된다. 줄고 198 참조. 작품의 행수는 Laskaya and Salisbury를 따름.

장면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흠모해마지않는 가웨인을 “자신의 손 안에”(1257) 독점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고 마치 성 밖 숲 속에서 사냥하는 그녀의 남편처럼 방 안에 갇힌 가웨인을 추적하고 포위하고 포획하며 그 순간을 즐긴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은 욕망을 성취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표현한다. 궁정식 사랑에서 늘 흠모와 봉사,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었던 귀네 비어와는 달리, 칩실 장면에서 레이디는 궁정식 사랑의 역할을 역전시켜 그녀는 상징적 사냥꾼이 되고 가웨인은 응시, 욕망, 사냥의 대상이 된다.<sup>8</sup> 이 장면에서 레이디는 마치 욕망과 행위에서 자율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레이디보다 더욱 확고하게 주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여성은 단연 모르간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녹색기사가 아서왕의 궁정을 찾아가 목베기 게임을 제안하여 아서왕의 궁정을 테스트하는 이 모든 사건을 계략하고 실행에 옮기게 한 인물로 제시된다. 아무리 그녀에 대한 언급이 급작스럽고 그 분량이 작다고 비평가들이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이 모든 행위의 주동자라는 사실은 변함 없이 남아있다. 그녀는 가웨인 앞에 그리고 독자들 앞에 두 번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모르간이 소개되는 첫 번째 장면은 본문의 앞에서 인용되었던 부분으로서 레이디가 가웨인을 보려고 일어나는 구절 바로 다음에서 시작된다. 이때 모르간은 걸어나오는 레이디를 인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947). 내린(Narin)이 잘 지적하듯이 947행까지는 레이디가 문장의 주어로서 행위의 주체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947행에서는 갑자기 레이디가 문장의 동사의 목적어로 바뀌면서 문자 그대로 행위의 대상으로 변환된다(61). 가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그녀가 모르간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모르간을 따르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모르간의 소개 장면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관찰이 주종을 이룬다. 그녀가 매우 나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찰로 그녀에 대한 소개는 시작된다. 아직까지는 모르간은 이름은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녀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별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높은 위상을 지니는 것에 대한 보족적인 특질로 해석될 여지

<sup>8</sup> 레이디의 역할의 전도에 대해서는 던셔(Dinshaw), 행, 피셔 등을 참고할 것.

를 남긴다.<sup>9</sup> 그러나 950행부터 958행까지 레이디와 모르간이 번갈아 묘사되면서 “이 사람 … 저 사람”(Pat on . . . pat ober)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둘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두 사람의 대조성 이 두 가지 특징을 한 번에 전달한다.<sup>10</sup> 이 둘에게서 가장 대조적인 점은 물론 레이디는 아름다운데 비해 모르간은 늙고 추하다는 점인데 특히 966행 이후 밥앤휠(bob and wheel) 부분에서 그녀가 땅딸막하고 엉덩이는 평퍼짐하다는 묘사에까지 도달하면 마치 패블리오 속의 늙고 추한 노파와 같은 인상만이 남는다.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그녀의 위상을 낮추어버리는 이러한 묘사는 사람들이 그녀를 정중히 모시더라는 최초의 그녀에 대한 관찰의 기록을 지워버린다.

이러한 ‘지우기’에도 불구하고 모르간은 행위의 주동자로, 그리고 마땅히 성안의 사람들이 정중히 모셔야 할 자로 다시금 소개된다. 그녀가 작품 속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바로 가웨인에게 버틸락이 녹색 띠, 레이디의 존재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목에서이다. 녹색 띠의 비밀을 안 후 여성 일반에 걸쳐 지주를 퍼부으며 흥분하던 가웨인이 정신을 차린 후 녹색기사에게 “당신의 본명은 무엇입니까”하고 신원을 묻는 질문을 한 순간 녹색기사는 훗데저트의 버틸락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통상적인 로맨스의 공식과는 매우 다른 답변을 한다. 싸움이 끝나고 승패가 결정된 후 상대방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로맨스 장르의 흔한 관습인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이다. 리디(Riddy)가 잘 지적하듯이 “누가 기사인가”하는 질문에서 그 답은 예외없이 “기사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다(248). 따라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기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한다. 기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명을 묻는 가웨인의 질문에 버틸락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족보를 말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아버지를 밝히는 것이 마땅

<sup>9</sup> 아서왕은 작품 초반부에서 매우 젊고 인생의 첫 황금기를 맞이한 사람으로 제시되는데 비해 아서왕의 이복누이인 모르간은 이토록 나이든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 그녀는 *Huth Merlin*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치료자로 묘사되었다(Friedman 267). 모르간이 블랙 매직에 능숙해지면서 점점 추해져 가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에서 그녀가 늙게 그려지는 것은 이렇게 블랙 매직과 추함을 연결시키는 전통에 따라 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셔는 그녀의 노쇠함이 육체의 타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 말한다(90).

<sup>10</sup> 행은 모르간과 레이디가 이렇게 쌍둥이같이 함께 묘사되는 것은 이 두 등장인물들의 “동시적인 차별화와 비차별화”를 강조한다고 말한다(503).

한 순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버틸락은 자신이 이 지방을 다스리는 것은 모르간의 힘 덕분이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모르간을 소개한다. 성주로서의 지위와 권력이 모르간 덕택임을 암시하는 이 구절은, 모르간이 귀네비어와 같은 왕비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는 분명히 말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르간은 귀네비어 왕비와 여러모로 대척점에 서 있다. 귀네비어가 작품 초두에 등장한 후 침묵 속에 사라진 것처럼 모르간은 작품 말미에 잠시 침묵 속에 등장할 뿐 그 앞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암시하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귀네비어가 아서왕의 궁정의 영광과 변역을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라면 모르간은 그 궁정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려는 실존하는 힘으로 존재한다. 귀네비어 왕비를 “대경실색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모르간의 동기는 이 지점에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매우 황당하게 들리는 이 발언은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대경실색해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grieved’로 보로프(Borroff)는 이 단어를 ‘괴롭히다, 고통을 준다’는 의미의 afflict로 번역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다. 즉 단순히 신기한 일이 생겨 놀라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놀라고 고통스러워 함을 뜻한다. 이 설명에 이어지는 수식어구는 그 놀라움의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설명한다. “높은 상 앞에서 자기 머리를 손에 들고 소름이 돋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게가 막혀서,” 즉 일상적 질서 속에 포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초현실적 힘의 위력에 대한 공포스런 인식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모르간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이다. 아서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마법사 멀린의 도움을 받았던 것, 심지어는 그의 태생에 조차 멀린의 마법이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엑스칼리버라는 마법의 칼이 아서왕의 왕권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서왕의 궁정은 일상적이고 순화적인 질서 속에 평온해보이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애초부터 마법의 지지를 받아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질서, 왕국의 안정을 깨는 것 역시 마법과 모종의 관련을 맺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아주 단순히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악한 기사들의 위협에 놀라고 곤경에 빠진 귀네비어를 구하던 랜슬렛이 결국 귀네비어와 사랑에 빠져 왕국의 멸망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생각한다면, 왕비가 놀라고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왕국의 안위를 위협할 계기를 조직적으로 생성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간의

위협은 궁정에서의 귀네비어의 표면적인 침묵과 무동작에도 불구하고 아서왕국에서 귀네비어가 갖는 중요성을 일깨운다. 남성 연대(homosocial bond) 속에서 주변화되어 있던 귀네비어의 중요성을 모르간이 상기시킨다. 그리고 위협의 힘의 실체로서, 한편으로는 현실적 권력 기반 속에 기사를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멀린처럼 초자연적 힘조차 구동할 존재로서 모르간이 제시된다. 레이디는 기사공동체의 질서를 공고하게 해주는 장치로 보였던 궁정식 사랑의 구조를 전복시키면서 모르간과 귀네비어 사이에서 아서왕, 가웨인, 버틸락, 모르간으로 이어지는 힘의 축을 매개하고,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는 캐멀렛의 질서체계를 교란시킨다.

### III

녹색기사가 처음 캐멀롯에 도착한 순간, 궁정의 모든 시선은 그에게 쏠린다. 딱벌어진 어깨, 단단한 가슴, 강인한 목부터 허리의 근육, 길고도 큼직한 팔과 다리, 이러한 녹색기사의 신체적 특징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몸과 지닌 것,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말까지 온통 녹색이었다는 사실이다. 136행부터 220행까지 그의 외모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묘사되는데 기사의 피부색과 말까지도 녹색이라는 점은 그의 이질성, 타자성, 비현실성, 초자연성을 강조하면서 궁정의 일상성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에 그가 속해 있음을 드러낸다. 궁정에 속한 사람들은 “환영, 그리고 마법”(240)으로 녹색기사를 개념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사의 존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은 그가 사실상 어떤 가능한 범주에도 꼭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Cooper 287). 화자의 눈에 가장 먼저 인상적인 것은 그가 거구라는 점, 그러면서도 균형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반쯤은 거인 같지만(half etayn 140) 또한 사람인 것 같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도끼를 들고 있지만 아서왕의 그 어느 기사에도 뒤지지 않을 세련된 기사다운 차림새에 정교하게 장식된 호사스런 장구를 갖추고 있다. 기사도 질서, 나아가서는 인간들의 질서에 편입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의 녹색 피부와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가 푹푹 떨어지는 잘라진 머리를 한 손에 든 채 힘차게 말을 타고 궁정의 문을

나서는 모습이 상징하는 초현실성은 궁정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 독자, 그리고 비평가에게 이르기까지 혼돈을 가득 안겨준다. 무시무시함과 쾌활함, 도전자와 평화의 메신저, 결투와 게임, 인간과 비인간 등 너무나 많은 기호의 중첩, 도저히 화해되지 않는 다양한 기호들의 양립은 녹색기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심지어는 작품이 끝나가도 녹색기사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로맨스에서 어떤 침입자가 궁정에 나타나 결투를 도전하게 되면, 그 결투가 끝난 후에는 그것이 마법이었던 적의였던 그 도전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고 도전자의 신분도 분명히 밝혀지며, 혹시 마법이 연루되었다면 그 마법도 깨지는 것이 로맨스의 통상적인 문법이다. 그런데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에서는 이러한 장르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가령 녹색기사가 원래는 버틸락이라는 평범한 인간인데 모르간의 마법에 걸리면 녹색기사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녹색기사로 태어났고 단지 가웨인을 유혹하기 위해 성주 버틸락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Cooper 289). 심지어는 그 녹색이 적용되는 범위조차 점차 불분명해진다. 보로프가 그녀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녹색기사가 맨 처음 소개되던 장면에서는 그는 분명히 사람 자체가 녹색이었다(233-36). 그런데 그린 채플(Green Chaple)에서 그가 가웨인을 만나는 장면에 오면 녹색기사는 “녹색 인간”(that green gome; 2239)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녹색의 사람”(the mon in the grene; 2227, 2259)이라고도 언급된다. 전자는 피부색 자체가 녹색임을 말하지만 후자는 마치 그의 옷, 혹은 차림새만 녹색인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한다. 게다가 그가 가웨인에게 녹색 띠를 기념물로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그는 이 녹색 띠가 “내 옷처럼 녹색”(grene as my goune; 2396)이라고 말하지 “나처럼 녹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Borroff 106-107). 그렇다면 녹색기사에 대한 처음의 궁정의 반응, 화자의 관찰은 단지 착시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녹색기사가 자신의 임무를 마치면서 점차 녹색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버틸락이 자의로 변신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모르간의 힘에 의해서만 변신하는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으므로, 마법이 풀리는 순간도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가웨인과의 마지막 결투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는 버틸락으로 바뀌는 것인지, 혹은 여전히 녹색기사로 남아있을지 독자들은 영원히 알 수 없다. 녹색기사의 마법은

설명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신비의 영역 속에 숨어 있다.

녹색기사/버틸락은 자신을 둘러싼 마법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모르간이 있다고만 말한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밀도 끝도 없이 단지 모르간이 주도했다고만 말하는 이러한 설명은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는데 매우 불충분하다. 가령 그는 자신을 캐멀롯으로 가게 만든 사람은 모르간이라고 말하면서도(2456) 레이디로 하여금 침실에서 가웨인을 유혹하도록 시킨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가웨인 앞에서 레이디를 늘 “나의 부인”이라고 부르며 가부장제에서 그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레이디는 늘 모르간과 짝을 이루어 동행했고 레이디의 손을 이끄는 자는 모르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침실의 유혹을 모르간은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 감독자가 모르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모르간의 힘과 행동의 범위가 명백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르간의 마법의 근원과 힘의 본성을 모호하게 제시한다는 점은 버틸락이 모르간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난다.

나는 내 집에서 거하는 모르간 페이의 힘으로  
 이 지방을 다스리는 핫데저트의 버틸락이라 하오.  
 모르간은 학문의 오묘한 것들, 마법의 술법을 잘 알고 있소.  
 멀린의 많은 기법을 그녀는 얻었다 말이오.  
 당신의 본국의 기사들도  
 모두 아는 학식높은 마법사 멀린  
 바로 그 사람과 그녀는 전에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이오.  
 여신 모르간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러오.

Bertilak de Hautdesert I hat in þis londe.  
 Purȝ myȝt of Morgne la Faye, þat in my hous lenges,  
 And koyntyse of clergye, bi craftes wel lerned,  
 Þe maystrés of Merlyn mony hatz taken –  
 For ho hatz dalt drwry ful dere sumtyme  
 With þat conable klerk, þat knowes alle your knyȝtez

at hame;  
 Morgne þe goddes  
 Þerfore hit is hir name: (2445-53)

버틸락은 자신이 이 지방을 다스리게 된 것은 모르간의 힘 덕택이라 말한다. 그런데 이 힘이 그녀의 마법의 힘인지 혹은 그녀의 태생과 가계가 가능하게 했을 정치적인 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후에 모르간이 가웨인의 이모임을 밝히면서 그녀의 가계를 소개하지만, 이 대목에서 버틸락은 모르간의 혈통은 은폐한 채 마치 그녀가 힘을 갖게 된 것은 오직 멀린에게 배운 마법 덕분인 듯 이야기한다. 자신이 성주가 된 것이 마법 때문인지 기사도 질서가 전제하는 혈통의 권력 덕택인지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대신 이 대목에서 모르간은 마법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여자, 아서왕의 세계에 속한 모든 기사가 다 알고 두려워하는 대 마법사 멀린 옆에서 그의 모든 비밀을 알아낸 마법사로만 소개된다. 여기에 버틸락은 그녀가 힘을 갖게 된 것이 멀린과 연애질을 해먹은 덕이라는 식의 말을 덧붙인다. 그녀가 정정당당하게 공부해서 멀린의 학식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해서 멀린을 홀려 마술을 배운 듯이 말끝을 흐리는 버틸락의 말투는, 모르간이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땅딸막하고 엉덩이는 펴퍼짐하다는 식으로 희화화하며 그녀에 대한 묘사의 끝을 맺는 시인의 화법과 어딘가 모르게 유사하다. ‘여신’이라는 호칭 역시 기독교에 대적하는 이교도 신에 필적하는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모르간의 힘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교 신의 악마성, 마법의 어두움, 은밀함, 파괴성을 암시한다. “그녀가 보내서 갔다”(2456)는 말은 “그녀가 나에게 마법을 걸었다”(2459)는 말과는 달리 정치적 지배력을 함의할 수도 있으면서, 버틸락은 자신을 지배하는 그녀의 힘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는다.

모르간의 마법, 학식, 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능력, 범위, 정도, 방식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이러한 버틸락의 태도는 여성들의 의학적 지식과 그들의 시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히 그 학식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중세의 의술사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맥크라켄(McCracken)은 중세 프랑스 문학에서 치료자에 대한 서술들을 연구하면서 치료자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불린 반면, 여성들은 결코 의사라는 칭호를 얻

지 못하며 여성들의 치료 효능은 마법 덕택이라고 설명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맥크라켄에 의하면 여성의 시술의 결과 나타나는 치료 효과에 대해 어떤 권위도 부여되지 않으며, 그 효과는 단지 마법, 혹은 초자연적인 힘과 연결된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약초를 고르고 삶고 찜고 좋은 향이 나도록 다른 약초를 섞고 하는 제약과정은 분명히 자연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 절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여성의 지식이 의학적 지식인지 마법의 효과인지를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간이 치료자로서의 명성도 지니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맥크라켄의 연구는 모르간에 대한 버틸락의 태도에 대해 흥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약 모르간이 아서왕의 궁정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 녹색기사로의 변신, 머리자르기 게임 등 마법이 개입하는 일들뿐 아니라 침실의 유혹, 녹색 띠 등의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계획했다면 그것은 모르간에게 마법 뿐 아니라 보다 지략과 전술 등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버틸락은 모르간이 이 모든 일의 주동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계획과 실행의 범위와 예측력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중간에 자신이 주도권을 지고 있는 것처럼 모호하게 만든다. 모르간의 정치적 권력과 지력은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되고 높고 추한 마녀의 이미지만 각인시킬 뿐이다.

마법은 환기될 뿐 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레이디가 가웨인에게 건네 준 녹색 띠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사랑의 징표로 녹색 띠를 제안할 때 난색을 표하던 가웨인은 누구든지 이 띠를 매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레이디의 말에 솔깃하며 그 띠를 받아들인다. 다음 날 아침 갑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가웨인은 잊지 않고 녹색 띠를 챙긴다.<sup>11</sup> 그러나 실제 녹색기사와의 대면 장면에서 이 녹색 띠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다. 애초에 이 띠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작품 속에서 관심을 표하는 이가 없다. 단지 가웨인이 녹색 띠를 챙긴 동기, 그의 기사로서의 덕목, 진실성, 그리고 그가 표방하는 기사도의 이념 등이 중요할 뿐이다. 말하자면 녹색 띠는 모르간으로 대표되는 마법의 세계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가웨인으로 대표되는 아서왕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상징물일 뿐이다.

<sup>11</sup> 반면 쿠퍼는 가웨인은 이 띠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290).

크리스마스 파티로 흥겨운 캐멀롯의 궁정에 돌연 문을 열고 들어온 녹색기사에 얽힌 마법도, 가웨인의 생명을 구해줄 듯 소중하게 건네졌던 녹색 띠의 마법도 가웨인이 귀환한 아서왕의 궁정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녹색기사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마치 가웨인의 뼈아픈 자기반성을 들으며 위로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가웨인과 독자들에게 남긴다.<sup>12</sup> 마법은 경이감과 흥미를 자아내기는 하지만 그 감흥은 오래 가지 않고 실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없다. 오직 기사도, 궁정의 가치관, 그들의 재해석만이 의미를 갖는다.

#### IV

녹색 띠의 비밀을 버틸락에게 들은 후 가웨인이 여성 일반에게 퍼붓는 저주(2414-28)는 특히 현대독자들에게는 매우 돌발적이고 탈맥락적으로 들린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여성 일반의 유혹의 본성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실패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정당화한다. 그는 녹색 띠를 받아 들었던 자신의 결정을 반여성론적 비난이라는 편리한 관습적 개념에 편입시켜 스스로를 위안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의식, 수치심, 자의식 등의 불편한 심정을 새로운 맥락으로 재고려하고 교섭, 조정, 절충, 재해석, 수정, 편입하려는 시도는 가웨인 개인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워커(Walker)가 지적하듯이 “이 텍스트에서는 모든 중요 용어가 계속적인 절충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제시된다. [녹색]기사 자신의 본성과 위상이 화자와 캐멀롯의 기사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절충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111).

녹색 기사를 처음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던 아서왕의 기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탐색의 과정을 거친다. 녹색기사는 아서왕의 집단이 수염도 채 나지 않은 풋내기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고 그들의 명성이 부풀려졌다고 폄하한다. 겁에 질린 기사들을 대신하여 아서왕이 마침내 도전을 받아들여줬다고 했을 때 가웨인이 나서며 하는 말은 이 궁정의 즉각적인 수정과 재해석의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도 되겠는지 왕비에게, 그리고 왕에게 묻는

<sup>12</sup> 브루어, 개님(Ganim), 보로프 등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성장 로맨스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브루어는 버틸락이 아버지 형 인물(father figure)이라고 말한다(*Symbolic Stories* 84).

가웨인의 질문은, 무력과 용기, 이에 대한 명성을 문제삼는 녹색기사의 도전에 대한 간접적인 응답이다. 그의 발언은 예절과 품격, 여성에 대한 존중, 왕의 권위에 대한 인정 등, 군사적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질서에 의해 이 궁정이 이끌어지고 있음을 과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녹색기사의 도전 앞에 경악하고 공포에 질려 기사들이 침묵하던 것이 마치 기사들의 겸손의 표현이며 예절과 권위에 대한 존중 의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Walker 118-22). 가웨인의 다음 발언은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아서왕의 기사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수정주의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제가 가장 약한 자이고 생각도 부족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덜 아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왕께서 제 삼촌이시라는 점만이 제가 칭송을 받는 이유입니다.  
 제 몸에 당신의 피가 흐른다는 것 외에는 제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I am þe wakkest, I wot, and of wyt feblest,  
 And lest lur of my lyf, quo laytes þe soþe –  
 Bot for as much as ʒe ar myn em I am only to prayse,  
 No bounté bot your blod I in my bodé knowe; (354-57)

가웨인의 발언에 따르면 아무도 녹색기사의 도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너무나 하찮은 일이어서 오직 자신처럼 무가치한 사람에게나 적당한 과업이기 때문이다(Plummer 201). ‘가장 용맹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아서왕의 핏줄이기 때문에’ 등의 가웨인의 발언은 궁정에서의 가웨인의 실제의 위상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해석은 현재의 순간의 필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기에 곧 수용되고 믿어진다. 또한 이 발언은 녹색기사의 도전이 전혀 두렵지않다고 녹색기사에게 주장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해석해야한다고 함께 자리한 기사들에게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캐멀릿의 질서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가웨인의 발언을 통해 마법은 길들여져 궁정의 질서의 일부로 재편입된다.

이와 같은 재해석과 길들이기의 과정은 녹색기사가 자기 머리를 손에 집어든 채 캐멀릿을 떠난 후 경악과 충격으로 겁에 질려 있는 귀네비어 왕비를 안심시키

기 위해 아서왕이 건네는 말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왕비에게 놀라지 말라며 “이런 게임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잘 어울리는 것”(472)이라 말하고 녹색기사 사건을 크리스마스 때 웃고 노래하며 공연되는 막간극이나 캐롤 송에 비유한다. 사실 방금 나간 녹색기사의 모습은 왕 자신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으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본심을 감춘 채 왕비를 진정시키는데, 이것은 사실 왕비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다”(468)는 묘사에서도 보이듯 함께 앉아있는 기사들과 숙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적 메시지가기도 하다. 그는 초자연적 힘의 작용으로 보이는 경이로운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여흥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입증하려는 듯 “이제 신기한 일(selly)을 보았으니 되었다”(475)면서 식사를 시작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통치를 위해 연출된 퍼포먼스로서, 조금 전 발생한 사건이 그가 작품 초두에 식사를 거부하며 듣기를 원했던 바로 그 경탄할 사건(meruayle 94)이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는 모험과 경탄의 ‘이야기’를 원했었는데, 현재 발생한 ‘사건’이 곧 그 ‘이야기’라고 맥락을 재수정하고 사건이 내포하는 폭력성과 위협적 성격을 길들여 크리스마스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편입시킨다. 아서왕 궁정의 기사도 질서는 재해석과정과 수정주의(revisionism)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아서왕이 원했던 이야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러한 흥겨운 잔치에서는 모험담, 신기한 이야기, 경탄할 사건 등을 들어야만 밥을 먹겠노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가 믿을 수 있는”(pat he myzt trawe 94)이라는 재미있는 수식어구가 따라 붙는다(Sharma 174). 이 수식어는 경이로운 이야기라는 요구 조건과 일견 상치되게 보인다. ‘있음직하지 않은 이야기’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옥시모론(oxyoron)적인 조건을 함께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아서왕이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이와 그럴싸함(plausibility), 이상함과 믿을만함(credibility)이라는 이항조합은 아서왕의 세계에서는 힘들지 않게 병존할 수 있는 속성임을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는 보여준다. 경이로운 이야기의 경이로움은 지속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캐멀롯의 가치관 속에 편안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모양으로 절충되어 편입되기 때문이다.

롯데저트와 그린 채플에서의 가웨인의 경험담 역시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쳐 캐멀롯에서 수용되고 유통된다. 통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의 반전들, 이해할

수 없는 마법의 세계, 새롭게 속속 밝혀지는 버틸락, 레이디, 그리고 모르간의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위협과 돌발성이 없는 안전한 도덕적 교훈과 자기반성 혹은 자기 충족적 자부심만이 남는다. 독자들이 알고 있던 녹색기사의 이야기와 캐멀롯이 기억하는 녹색기사의 이야기는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띤다. 녹색 띠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은 이에 대한 가장 극적인 예이다. 사랑의 징표라는 의미를 가진 녹색 띠는 거부했지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의미로서는 녹색 띠를 받아들였던 가웨인은 녹색 띠에 대한 버틸락의 배경 설명을 들은 후 당황하며 그것을 자신의 비겁함과 탐심(couetyse 2380)에 대한 상징으로 재해석한다. 두려운 싸움에서 정당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숨을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탐심이라고 해석해야할지는 분명하지 않다.<sup>13</sup> 그러나 마법의 힘을 녹색 기사와의 결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로 사용하려 했다는 내적 동기를 가웨인 스스로도 인정할 수도 없고 기독교와 기사도가 결합된 아서왕 궁정의 논리 안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은 기독교 교리 안에서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범주 안에 절충적으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 그는 마법에 대한 의존감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완전히 삭제한 채, 오직 수치의 징표, 육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징표로 녹색 띠를 매고 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웨인이 캐멀롯에 귀환했을 때 가웨인은 “진실하지 못함의 징표”(token of vntrawþe 2509)라는 새로운 의미를 녹색 띠에 덧붙인다. 녹색 띠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 셈이다. 개인의 내면의 고백, 자기반성이라는 사적 차원에서도 녹색 띠는 이렇게 지속적인 의미의 수렴과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궁정이라는 공적 장에 이르게 되면 녹색 띠는 또다시 급진적인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녹색 띠를 어깨에 차고 온 가웨인을 본 궁정의 첫 번째 반응은 위로와 웃음이다(2513-14). 험난한 추적과 두려운 결투의 과정을 다 겪고 살아 돌아온 동료가 죄책감에 젖은 모습을 보며 위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위로의 과정에서 의미의 굴절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로의 과정 중에 녹색 띠로 대변되는 가웨인의 모험의 성격이 재해석되고 재규정되

<sup>13</sup> 가웨인의 과오를 기독교의 일곱 중죄(Seven deadly sins)의 전통에서 해석한 글로는 뉴하우저(Newhauser)를 참조할 것

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것은 기사와 숙녀들이 가웨인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는 점이다. 생명을 건 가웨인의 모험이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이 순간의 궁정에 속한 사람들의 웃음은 녹색 기사가 일 년 전 कै멜롯에서 머리를 손에 들고 떠났을 때 이 두려운 사건을 웃고 노래하는 막간극에 비유했던 아서왕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이들은 가웨인의 녹색 띠에서 자기 정죄감을 삭제하고 동료의식이라는 새로운 즐거운 의미로 녹색 띠의 의미를 수정한다. 이제 개인의 죄의식과 양심의 고통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를 갖던 녹색 띠는 원탁의 기사들의 동료애와 단합의 상징으로 변환된다. 이것은 지시어와 대상 사이에 어떤 본질적 연관성도 없이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기호 이론을 선연하게 상기시킨다. 사적인 의미의 기호가 공공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본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공적 유통재로서 새로운 의미를 덧입는다. 게다가 이 녹색 띠를 कै멜롯의 원탁의 기사 구성원들이 모두 착용했을 때 대내적으로는 동료의식과 단합, 공동체 의식 나아가서는 원탁의 명성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겠지만, 구성원 외부의 존재에게는 이것은 원탁에 소속된 사람과 외부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배타성의 기호로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녹색 띠는 유통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의미의 수정과 부가를 거치며 새로운 다층적 의미를 획득한다. 녹색 띠가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건의 섬뜩한 본질, 아서왕의 궁정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력은 마법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두려운 현실 역시 다시금 즐거운 이야기의 틀에 맞게 절충되고 조정된다. “왕께서 제 삼촌이시라는 점만이 제가 칭송을 받는 이유입니다. 제 몸에 당신의 피가 흐른다는 것 외에는 제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356-57)고 말하며 왕과 자신이 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한 시도 잊지 않던 가웨인이, 버틸락이 밝혔던 사건의 이면 즉 같은 혈족인 모르간이 이 모든 음모의 주동자라는 사실을 언급했는지에 대해 시는 침묵한다. 가웨인과 아서왕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진실들, 가령 일상적 질서와 힘의 체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의 힘, 그리고 그 녹색기사가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 궁정식 사랑의 물이 노출하는 허점, 공적 맹세와 사적 욕망의 충돌, 궁정식 사랑의 게임에서의 가웨인과 레이디의 역할 전도, 레이디의 욕망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주도성, 모르간과의 혈연관계와 그녀의 야망과 힘 이러한 모든 것은 모두 사상되고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 크리스마스 게임, 웃음과 여흥의 맥락에 맞게 의미

는 재조정되고 재해석된다. 궁정은 놀랍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삭제하거나 억누른 채, 그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체계로 내용을 수정하고 질충하며 재해석한다. 모든 것은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를 가릴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2511-12)는 가웨인의 탄식은 아서왕 왕국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진실이다. “[그 떠를] 맨 자들은 그 후 영원히 존경을 받았다. 로맨스의 최상의 책들이 잘 선포하듯 말이다”(2521-22)는 구절은 로맨스가, 그리고 역사가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들의 영광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 이후의 왕국의 종말도 그려내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화자는 브루투스(25)의 책들이 아서왕의 왕국에 많은 신기한 일(aunterez)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시를 맺는다. 그렇다면 이때의 신기한 일은 정말 단순히 신기하기만 한 일일까? 혹시 지금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에서 그랬듯이 왕국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의 힘, 이질성과 통제불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궁정을 뒤흔들었던 마법, 궁정의 안위를 상징하는 귀네비에어에 대한 적의, 혈족 모르간이 갖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의 결말은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왕국부터 당대의 영국까지 이어져 온 왕국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고, 모르간이 타겟으로 삼았던 귀네비에어 왕비가 아서왕의 왕국의 멸망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아서의 왕국의 상처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는 런던을 제 2의 트로이라 부르고 새로운 기사단을 창설하고 왕권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확립하는 역사 서술에 새로운 열정을 보이던 동시대에 대한 시인의 매우 간접적인 주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사단의 창설과 새로운 역사 기술을 통해 상처를 가리고 새로운 통합과 정통성 확보를 의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협적인 힘, 통제할 수 없는 적대적 세력은 존재하며 치명적 약점 또한 존재한다. 역사는 진행되는 동시에 반복된다는 것이 시인이 전제하는 역사관이 아니었던가. 왕국의 흥망성쇠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권력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교란되고 전복될 수 있다는 의심은 삭제되고 주변화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삭제와 수정, 질충과 재해석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은 남아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도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아름답고 신기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독자들에게 환기시킨다.

주제어 | 여성, 마법, 궁정, 가웨인, 녹색기사, 모르간, 귀네비어, 아서왕, 수정주의

## 인용문헌

- 최예정. 『중세 영국 로맨스에 나타난 왕비의 회임의 의미: 『고씨 경』, 『에덜스틴』, 『투르 백작』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16 (2009): 171-212.
- Borroff, Maire.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 M. H. Abrams et. al. 6th ed. Vol 1. New York and London: Norton, 1993. 200-53.
- \_\_\_\_\_. *Traditions and Renewals: Chaucer, the Gawain-Poet, & Beyond*. New Haven: Yale UP, 2003.
- Brewer, Derek. "The Interpretation of Dream, Folklore and Rom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77 (1976): 569-81.
- \_\_\_\_\_. *Symbolic Stories: Traditional Narratives of the Family Drama in English Literature*. Cambridge: D. S. Brewer, 1980.
- Brewer, Derek, and Jonathan Gibson, eds. *A Companion to the Gawain Poet*. Woodbridge and Rochester: D. S. Brewer, 1997. 2002.
- Cooper, Helen. "The Supernatural." Brewer and Gibson 277-92.
- Dinshaw, Carolyn. "A Kiss Is Just a Kiss: Heterosexuality and Its Consolations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Diacritics* 24 (1994): 204-26.
- Fisher, Sheila. "Leaving Morgan Aside: Women, History, and Revisionism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rthurian Women*. Ed. Thelma S. Fenst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0. 77-95. Rpt. in *The Passing of Arthur: Essays in Arthurian Tradition*. Ed. Christopher Baswell and William Sharpe. New York: Garland, 1988. 129-51.
- Friedman, Albert B. "Morgan le Fa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Speculum* 35 (1960): 260-74.
- Ganim, John. *Style and Consciousness in Middle English Narrative*. Princeton: Princeton UP, 1983.
- Heng, Geraldine. "Feminine Knots and the Other *Sir Gawain and the Green*

- Knight.*" *PMLA* 106 (1991): 500-14.
- Laskaya, Anne, and Eve Salisbury, eds. *The Middle English Breton Lays*. TEAMS: Middle English Text Series. Kalamazoo, MI: Medieval Institute, 2001.
- McCracken, Peggy. "Women and Medicine in Medieval French Narrative." *Exemplaria* 5 (1993): 239-62.
- Narin, Elisa Marin. "'Pat on . . . pat oþer': Rhetorical Description and Morgan la Fa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Pacific Coast Philology* 23 (1988): 60-66.
- Newhauser, Richard. "The Meaning of Gawain's Greed." *Studies in Philology* 87 (1990): 410-26
- Paton, Lucy Allen. *Studies in the Fairy Mythology of Arthurian Romance*. Boston: Athenæum, 2009.
- Plummer, John. "Signifying the Self: Language and Identity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ext and Matter: New Critical Perspectives of the Pearl-Poet*. Ed. Robert Blanch, Miriam Youngerman Miler, and Julian N. Wasserman. Troy, NY: Whiston, 1991. 195-212.
- Riddy, Felicity. "Middle English Romance: Family, Marriage, Intimacy." *The Cambridge Companion to Medieval Romance*. Ed. Roberta L. Krueger. Cambridge: Cambridge UP, 2000. 235-52.
- Sharma, Manish. "Hiding the Harm: Revisionism and Marvel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44 (208): 168-93.
- Tolkien, J. R. R., and E. V. Gordon, ed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Rev. Norman Davis. 2nd ed. Oxford: Clarendon P, 1972.
- Vantuono, William, ed. and trans.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A Dual-Language Version*. New York and London: Garland, 1991.
- Walker, Greg. "The Green Knight's Challenge: Heroism and Courtliness in Fitt I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Chaucer Review* 32 (1997): 112-28.

**ABSTRACT****Woman, Magic and the Court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Yejung Choi**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ole and the meaning of woman and magic in King Arthur's court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oem which begins with a sudden appearance of a magical being ends in the erasure of the presence of the supernatural and Morgan, its motivating force, while highlighting the unity and the renown of the Round Table.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feminine text in which the dynamic of the desires and actions of Guenevere, Lady, and Morgan are inscribed. Though their presence is consistently marginalized or almost erased, the symbolic and substantial power of women is palpable in the text. Second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imultaneous invocation and revocation of the presence and power of magic. This study points out the absence of the demystification or disenchantment scene in the work which are usually found as a conventional feature in romances as well as of the explication of the extent and the nature of the might of Morgan. Fi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negotiation, revision of meanings which is presented to be the crux of the subsistence of the identity of the Arthurian court. Marginalization at once of woman and magic is central to the revisionism prevalent in the Arthur's court. Renegotiation, compromise, re-valorization and revision are the key to the hermeneutics of Camelot.

**Key Words** | woman, magic, court, Gawain, Green Knight, Morgan, Guenevere, Arthur, revisionism